

6. 인삼포개량해가림의 생산구조비교

(한국인삼연구소 충남대학교 농과대학)

목성균*, 이성식,
천성기 이종화,
조재성**

인삼포해가림 중 관행해가림(벗질피복, 수광율 5%)과 개량해가림(P.E차광망피복, 수광율 10%)간에 인삼의 군락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 年根別(2~6年根), 行別, 높이別로 葉面積, 葉面積指數(L.A.I), 比葉重(S.L.W), 莖葉의 乾物重 및 照度等의 分布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.

1. 行別 受光量(地上 50 cm部位)은 慣行해가림에서 前行이 8%, 中間이 5%, 後行이 2%等 平均 5%로 行間에 差異가 심했으나 改良해가림에서는 前行이 12%, 中間이 10%, 後行이 8%等 平均 10%로 增加되었으며 行間에 差異도 적었다.
2. 行別, 높이別 葉面積, 葉面積指數, 比葉重 및 莖葉乾物重等의 分布 差異가 慣行해가림의 2年根에서는 적었으나 3年根이상의 高年根으로 갈수록 커졌으며 改良해가림에서는 그 差異가 적어졌다.
3. 高年根의 行別 葉面積과 莖葉의 乾物重分布가 慣行해가림에서는 前 行部分에 많이 分布되고 後行에는 적은 반면에 改良해가림에서는 行間에 큰 差異가 없이 고루 分布되었다.
4. 根의 收量도 改良해가림은 慣行해가림에 比해서 28% 增加되었으며 慣行해가림은 前行인 1~2行에 많이 分布된 반면 改良해가림은 後行인 4~5行에서도 현저히 많았다.